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음 6월 20일) 제30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우리는 원팀'... 전북 문제 해결 '한마음'

### 전북 국회의원·도 시군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발전 토대 대형사업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

김관영 도지사 "도민 꿈  
이뤄드리는 드림팀  
되도록 함께 힘 모으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 전북 교육감, 시장·군수 등 전북도의 지방자치 주역들이 모두 모여 15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one team)이 되어 전북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전북 국회의원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전원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관·도·시·군의 탄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각 단체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위기에 코로나9 재유행 가능성과 폭염 등 민생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치관·도·시·군이 민생과 경제회복에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당연한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내년 국가예산 부처반영액은 전년대비 상승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정치관과 도·시·군이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알찬 성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유치와 민생회복,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의 토대가 될 대형 사업들과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전북도는 현재 여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4개 사업과 여타 신청을 준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2건의 대형 사업들에 대해 여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현안 논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서 전북권이 소외되지 않고 타 초광역 권역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새만금 SOC 조기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외에 자선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 육성 및 고용유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사·공단 중심의 공공

기관 추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하이퍼튜브 종합 시험센터 새만금 유치'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 또한 자신의 지역의 주요 국가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관·도와의 공조를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여야 정치관과 14개 시군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말 그대로 전북 원팀(one team)의 출정식이었다"면서 "앞으로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도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전북 원팀 전북도민의 꿈을 이뤄드리는 드림팀

(Dream team)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재부 심사 동향에 촉각을 세우며 정부 예산안의 전북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총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 주요현안과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요청하고 기재부 2차 심의가 종료되는 8월 초까지 국가예산 확보 집중 활동 기간으로 정해 과소·미반영 사업의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 도지사 관사 환원 도민과 약속 이행

김 지사 "활용방안  
도민 의견 수렴 결정"

도, 내달 12일까지  
전북소통대로 통해  
도민 아이디어 수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관사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이다. 그로 인해 앞으로 관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인수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다가서기 위한 취지로 역대 도지사가 사용했던 관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주는 게 도리'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약 27년간 사용된 도지사의 관사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관련 부서에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드리고 관사의 활용방안도 도민의 뜻을 모아 정하자"고 지시했다.

이에 전북도는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8월 12일까지 '전북소통대로' (<https://policy.jugok.go.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우편(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회계과) 또는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사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관사의 활용 용도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후속 행정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힘 관사가 도민을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 '새로운 전북 만들자'... 농공단지 도약의 날

### 도, 경쟁력 강화·입주기업 성장방안 모색 등 위해 열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 설명회와 우수기업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첫 시간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신영준 과장이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근로시간 규정 및 주휴시간제 보완 입법 주요내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진우 팀장이 '입주기업 자금지원 및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선훈 과장이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등 환경조성사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무주덕유산반딧불이농업조합법인 이경원 대표가 '무주 천마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건강식품 개

발 및 해외진출 소개'를 발표해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자금지원, 환경개선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김종훈 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는 농공단지 내 기업들이 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며, "현재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혁신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공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2년 전라북도 농공단지 도약의 날'을 지난 15일 부안 소노벨 변신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공단지 도약의 날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입주기업들의 성장·발전 방안 모색과 다양한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도·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 쌀 소비촉진을 위한 호소문

전북농협은 공급과잉으로 판매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의 55.3%인 329천톤을 매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와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은 현저히 감소하여 쌀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많은 농가들이 금년 수확기 벼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농협은 쌀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생산 농가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에게 다음의 사항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첫째, 하루 두 끼 이상 쌀을 소비하여 주십시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공깃밥 한 공기 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쌀에 포함된 당질은 우선적으로 에너지로 소비되기 때문에 비만예방에

효과적이며, 항암효과, 성인병예방, 체내 콜레스테롤 및 혈압상승 억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인을 도와주십시오.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2011년 71.2kg → 2021년 56.9kg

- 공깃밥 1그릇(103g) 가격 : 283원 (커피 한잔 값의 6% 수준)

둘째, 쌀 구매 시 전북 쌀을 애용하여 주십시오. 품질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는 전북 쌀의 명품 이미지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맑은 물, 청정 옥토, 일조량이 높은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전북을 대표하는 '신동진'은 씹는 식감이 우수하고 구수한 단맛으로 전국의 소비자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쌀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맛있는 전북 쌀을 구매하여 주십시오.

### 2022. 7. 18. 전북농협 임직원 일동

전북농협 상호금융은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